

2015년 연간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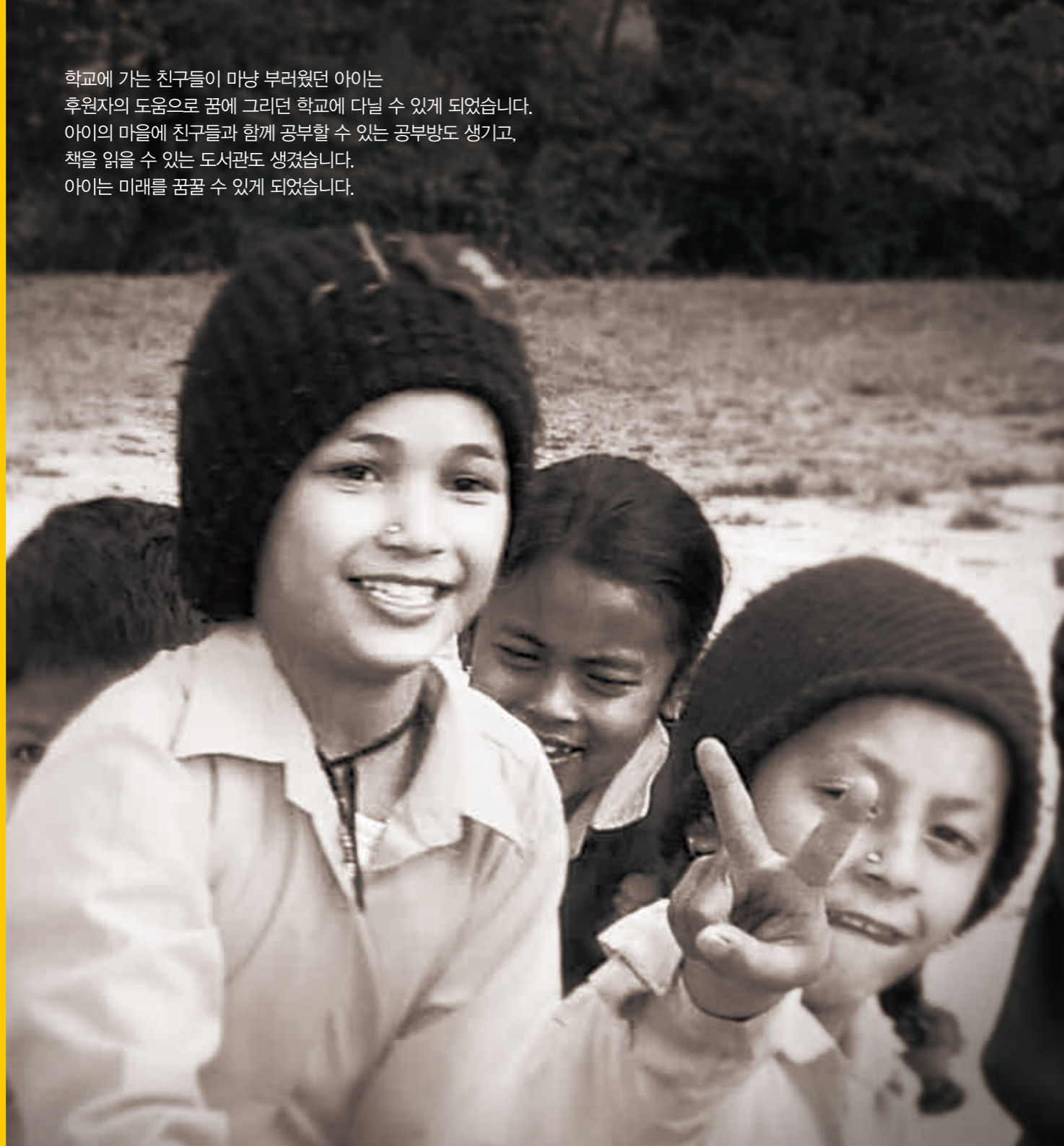
모두가 나의 아이들입니다



올 마이 키즈
www.allmykids.or.kr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마냥 부러웠던 아이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마을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도 생기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도 생겼습니다. 아이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 03 인사말
- 04 이제는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
- 06 2015년 사업보고
- 08 2015년 결산보고
- 09 후원어린이 현황
- 10 함께해서 더 좋은 행복 캠페인
- 12 나눔보고
 - ① 코트디부아르 브야케 병원교실
 - ② 몽골 울란바트르 결연아동
- 16 기부자 인터뷰
 - ①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가족
 - ② 홍보와 나눔 제안도 기부죠
- 20 나눔 참여
 - ① 위헤드림(We Have a Dream) 봉사단
 - ② 이런 나눔도 있습니다
- 24 2015년 함께 해 주신 회원
- 27 주요 연혁

짚막한 계명, 사랑

김영욱 이사장 인사말



아프리카 수녀님에게 온 편지입니다.

“극도의 가난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문맹인 부모에 의존해야 하며 매일 10km를 걸어 통학 합니다. 말라리아 고열에도 약을 쓰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보는 저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아이들이 교육 받는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넬슨 만델라의 말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무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도자들과 NGO 단체에서 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짝하고 울컥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점점 성적이 올라가고 키도 크고 자신감도 생기는 등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가 끝나면 어른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서 배고픔과 갖가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방과 후 수업을 하며 맛있는 간식도 먹고 태권도도 배우고 합창도 하며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원회원님의 사랑과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 잘 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모든 후원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약하지만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그대는 단 한 가지 짚막한 계명을 받았다.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 성 아우구스티노

이제는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

SDGs와 올마이키즈의 과제



인류 70억 명 중 약 20%인 13억 명이 가난에 허덕이고, 제대로 된 의료·교육·위생시설 등의 혜택을 못보고 있다. 유엔은 문제해결을 위해 2015년까지 달성할 ‘밀레니엄 발전 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2000년부터 추진해왔고, 2016년부터는 2030년까지 달성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MDGs의 8개 목표 중에서 교육 관련 목표는 ‘(2) 초등교육 보편화’(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의 초등학교 졸업 보장)와 ‘(3)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2005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성 불균형 최소화, 2015년까지 완전 철폐)이었다. 교육 불평

등 해소를 위한 세계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 초등학교 취학률은 2015년 약 93%였지만, 여전히 학교 밖 아동이 존재하고(2012년 약 5,800만명), 저소득국과 중소득국 어린이 중 1/6인 100만 명이 중도 탈락할 것이다.
- 94개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이 모두 무상 초·중·고등교육을 헌법과 다른 법적 제도로 보장하고 있어서, 중학교 진학률은 2012년 85%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빈부에 따라 격차가 심하다.
- 2015년까지 세계국가 중 69%가 초등교육에서, 48%가 중등교육에서 양성평등을 달성한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 밖 아동 중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아예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여학생은 입학하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적었다.
- 146개국 중 83%가 교사 대비 학생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1/3의 국가에서 75% 이하의 초·중·고사만이 정식교사훈련을 받았다.

SDGs의 17개 목표 중 교육 관련 목표는 ‘(4)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다. MDGs가 양적 목표를 달성하느라 교육의 질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따라 ‘양질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 10개의 세부목표 중에서 어린이·청소년교육 관련 목표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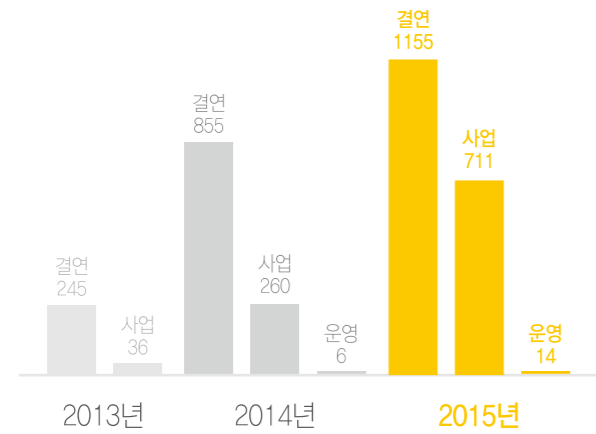
-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중·고등교육을 무상으로 공평하게 받도록 한다.
-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돌봄, 초등 전 교육을 받아서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토착민·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을 똑같이 받도록 한다.
- (4-a)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작은 섬나라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하여 유자격 교사를 늘린다.

이와 같은 SDGs의 세부목표를 생각할 때, 올마이키즈는 앞으로 다음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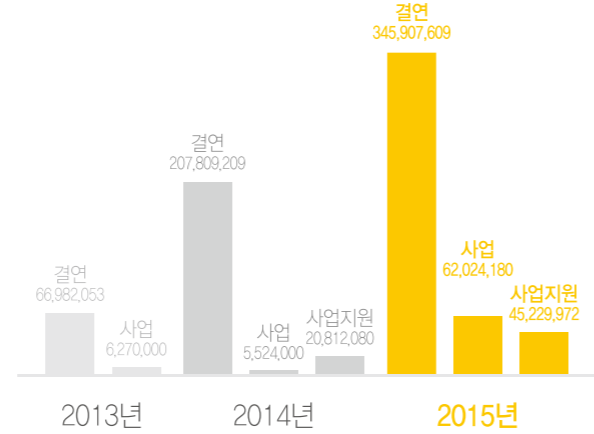
- 결연후원과 사업후원에서 여자 어린이, 장애청소년,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함으로써 교육에서의 모든 차별이 해소되도록 노력한다.
-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고려한다.
- 좋은 교사 양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교사로 적극 양성하도록 한다.

회원 현황



연도	회원	인원(명)	증가(명)
2013년	결연회원	245	
	사업회원	36	
	합계	281	
2014년	결연회원	855	610
	사업회원	260	224
	운영회원	6	6
	합계	1,121	840
2015년	결연회원	1,155	300
	사업회원	711	451
	운영회원	14	8
	합계	1,880	759

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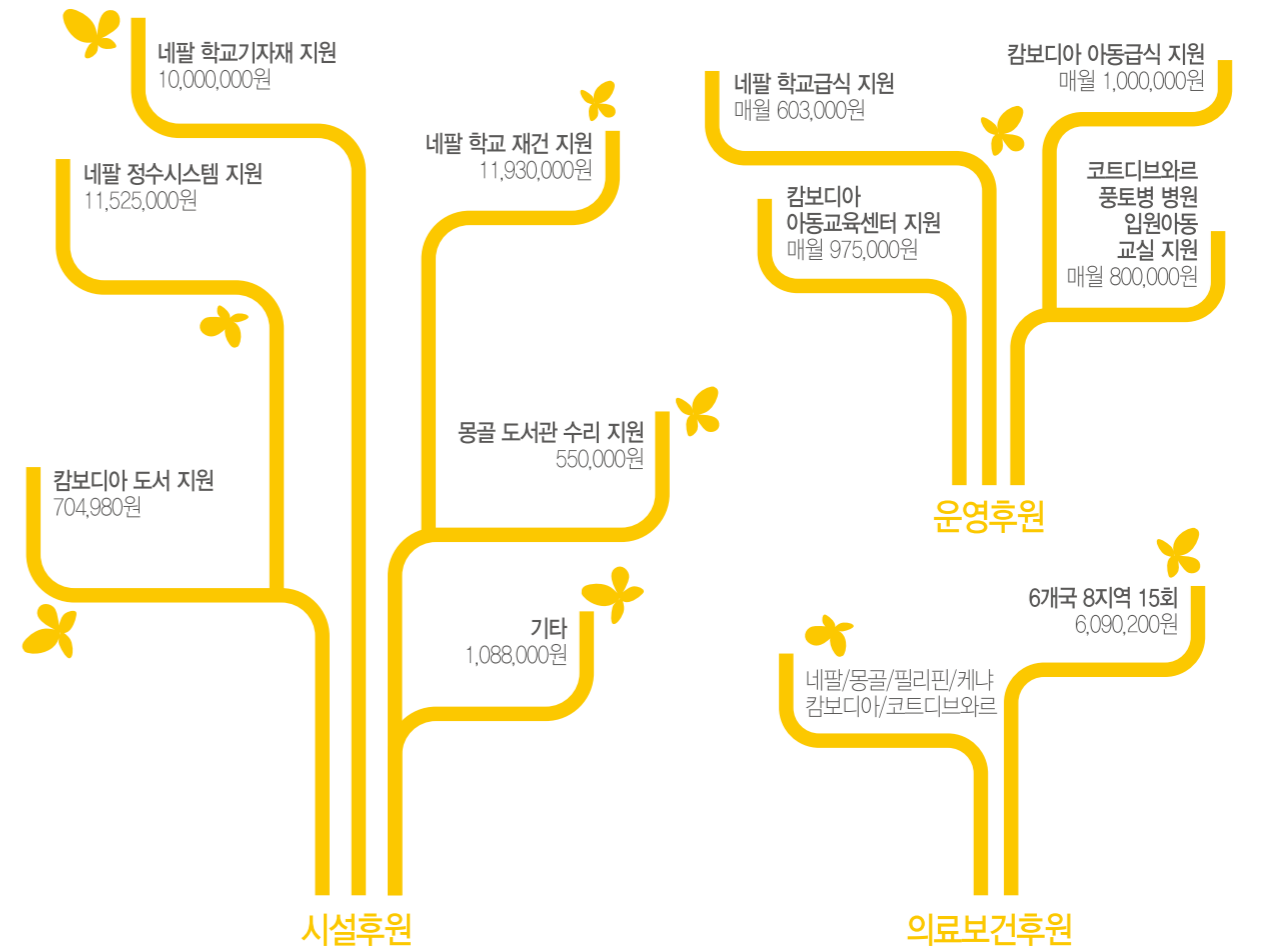


연도	회원	후원금(원)	증가율
2013년	결연후원	66,982,053	
	사업후원	6,270,000	
	합계	73,252,053	
2014년	결연후원	207,809,209	
	사업후원	5,524,000	
	사업지원비	20,812,080	
	합계	234,145,289	220%
2015년	결연후원	345,907,609	
	사업후원	62,024,180	
	사업지원비	45,229,972	
	합계	453,161,761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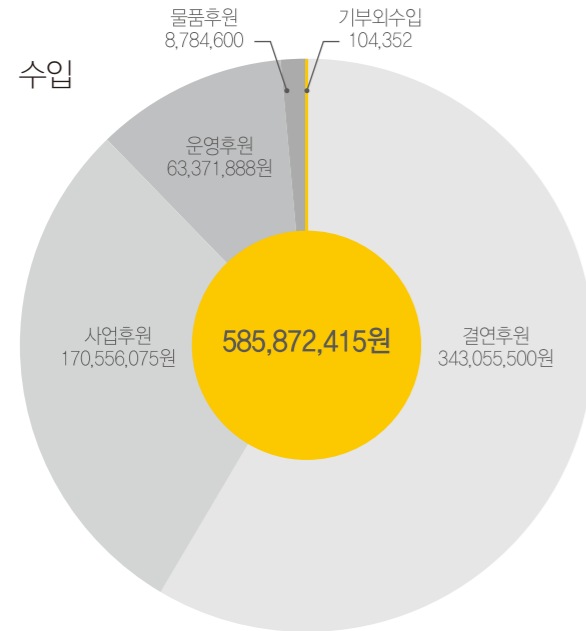
결연 후원

20개국 1,161명의 결연아동에게 매월 후원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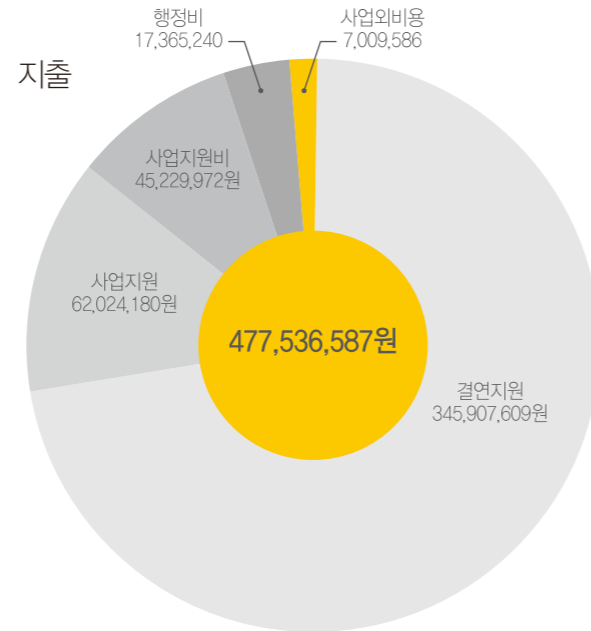
사업(프로젝트) 후원



2015년 연간 결산



구분	항목	금액(원)
기부수입	결연후원	343,055,500
	사업후원	170,556,075
	운영후원	63,371,888
	물품후원	8,784,600
	소계	585,768,063
기부외수입	이자수입	104,346
	사업수입	-
	기타수입	6
	소계	104,352
계		585,872,415



구분	항목	금액(원)
목적사업비	결연지원	345,907,609
	사업지원	62,024,180
	사업지원비	45,229,972
	소계	453,161,761
행정비	인건비	10,546,700
	운영비	6,818,540
사업외비용	소계	17,365,240
	기타지출	4,664,256
	집기와비품	2,345,330
계		477,536,587

후원 어린이 현황

(단위:명)

대륙	국가	함께하는 단체	2014년		2015년	
			결연	프로젝트	결연	프로젝트
아시아	네팔	거룩한말씀의회	80	70	10	70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23		19	
		국제가톨릭형제회				450
	몽골	살레시오수녀회	8		7	
		예수수도회			42	100
		대구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87	
	베트남	예수성심전교수녀회	10			
		성가소비녀회	17		32	
	시리아	살레시오수녀회	9		9	
	인도	마리아달수도회	10		13	
		마리스타교육수사회	14		14	
	캄보디아	살레시오수녀회	27		40	
		행복공장	24		16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47	450
		성가소비녀회			11	
키르기스스탄	예수회			27	250	
	작은형제회			12		
필리핀	거룩한말씀의회	77		135		
	꽃동네수도회	64		51		
	도움인신마리아수녀회	12		12		
	말씀의선교수도회	58		77		
	바클로드교구바나고본당	35				
	성가소비녀회	71		66		
	예수성심전교수녀회	11		58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21		45		
	아프리카	가봉	6		10	
		앙골라	16		16	
우간다		15				
차드		70		69		
탄자니아		83		74		
카메룬		도움인신마리아수녀회	20		20	
		살레시오수녀회	7		7	
케냐		전교가르멜수녀회	20		27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9		9	50
콩고		콘솔라따수도회	29		29	
	살레시오수녀회	20		20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	10		10		
	마살제도	12		9		
남미	볼리비아	16		25		
	전교가르멜수녀회	12				
페루	성심수도회	6		6		
	성심수도회					
합계	20개국	22단체	922	70	1,161	1,370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주세요

1년 365일 중 단 하루, 우리 아이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주세요.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
 부모를 도와 일하느라 매일매일 바쁜 아이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 아이
 크리스마스 불빛도 다른 세상인 아이

난생 처음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는 아이
 새 신발이 아까워 꼭 끌어안고 있는 아이
 선물 상자를 받아들고 얼굴이 붉어지는 아이
 원피스를 입고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아이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든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과 크리스마스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또 다른 하루를 의미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주세요.

이런 아이들에게 온전히 나만을 위한 특별한 하루란 어떤 의미일까요?

보내주신 선물비용은 각 나눔협력처를 통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선물로 전해집니다.

내 손안의 도서관

아이들은 책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반에서 유일하게 교과서를 가진 어린이는 이 아이뿐이다. 교과서를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아프리카 아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솜사탕 같이 하얀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팔과 같이 산속에 사는 아이들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

세요. 아이들은 책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서점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걸어서 두세 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야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한 번만 보고 책장에 꽂아 놓습니다. 책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은 책이 닳을 때 까지 같은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우리는 재미없다며 책을 읽다 중간에 쉽게 덮어버립니다. 제대로 된 책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뜯겨 나간 페이지의 빈자리를 보며 결말을 상상만 할 뿐입니다.

두세 시간을 걸어도,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도, 결말은 상상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도 읽을 책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후원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마련한 한 권의 책에는 아이가 꿈꿀 수 있게 만드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반대편에서 내가 선물해준 책을 읽는 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상상해 보세요.

배움의 씨를 뿌리는 병원학교

풍토병 장기입원 어린이에게 컴퓨터교육

박 프란치스카 수녀
(그리스도교육수녀회)

매일매일 한 대접의 피고름을 짜내는 세쿠

세쿠가 우리 브야케병원에 입원했을 때, 세쿠는 온 목과 등, 배, 넓적다리에 상처를 가지고 입원했다. 우리 브야케병원은 코트디브와르의 풍토병인 브릴리병(피부궤양) 무료 치료 병원이다. 18세인 세쿠 엄마도 아이나 다름없었다. 세쿠를 혼자 병실에 눕혀 놓고 어디론가 사라지기 일쑤였다. 거의 매일 한 대접씩 상처의 고름을 짜내는데도 세쿠는 다 큰 아이마냥 눈망울만 굴릴 뿐 울지도 않았다. 온통 슬픔 가득한 세쿠의 눈망울을 보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유에 탄 미수가루, 계란, 생선살을 주면 새끼 새처럼 음식을 받아먹는 세쿠에게 생명의 씨앗을 보았다. 몸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얼굴에 슬픔은 여전했다. 어떤 때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내 교실에서 수업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몇 달이 흐르면서 기적처럼 상처가 나아갔다. 대퇴돌기 문제로 아직 걸을수는 없지만 세쿠 얼굴에도 미소가 시작되었다. 교실에 무심코 앉아만 있었던 것은 아닌 모양이



매일매일 고름을 한 대접씩 짜내도 울지 않는 세 살의 치쿠. 몇 달 만에 볼어로 "안녕하세요? 수녀님." 인사를 건넨다.

다. 어느 날 아침 “안녕? 세쿠.”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수녀님.” 한다. 그렇게 무심히 앉아만 있던 세 살배기가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엄마도 조금씩 철이 들어간다.

최장 5년의 입원, 교육은 계속되어야

처음 이곳 병원을 시작했을 때는 브릴리 궤양 치료에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줄 몰랐다. 피부궤양절제와 피부이식을 하면 곧바로 퇴원할 거라 생각했지만 식당이자 교실인 이곳에서 공부한 덕분에 아이들은 퇴원 뒤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항생제 치료, 상처절제술, 피부이식에 몇 년씩 걸리는데, 아주 조금만 상처라도 남아 있으면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완치 후 퇴원시켜야 한다. 그러자니 최소 6개월에서 5년이 걸리기도 한다. 아이들이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림처럼, 아이



당이자 교실인 이곳에서 공부한 덕분에 아이들은 퇴원 뒤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

들 한 명이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 긴 입원기간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 퇴원 후 마을로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처음 입원하면 고통이 심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두 달 정도 지나면 상처치료와 물리치료만 하면 되기에 공부가 가능해진다. 이 나라는 60개 부족언어가 있으며, 공통어는 불어이다. 거의 대부분 마을에서 자기 부족어만 사용하기에 입원해서도 상대방이 알아듣든 말든 각자 자기네 부족 말만 한다. 이런 아이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했다. 마을에서 망아지처럼 뛰어놀고 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수업 자세부터 가르쳐야 한다. 몇 달이 지나면 온 병원이 공용어인 프랑스로 재잘대는 소리가 가득하다. 따로 교실 공간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식당



아이들이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림처럼, 아이들 한 명이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옆 한쪽 공간에 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고 있다.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교실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짧지만 그 교실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하다.

장애인에게 자활의 수단인 컴퓨터교육

브릴리병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팔과 다리를 절단해 장애인이 된다. 이런 장애어린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 교육일 것이다. 작은 공간의 몇 대 없는 컴퓨터지만 시간표를 정해 모두가 열심히 배운다. 이처럼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뿌린 씨앗이 그들 안에서 자라나 어느 날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에서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계속해서 씨앗을 뿌릴 용기를 갖는다.

또 다른 원영이가 될 수도 있는 아이들

몽골 울란바트르 결연아동

이 글라라 수녀
(대구샬트르성바로수녀회)



방과 후 교실에서 쿠키를 만들고 있는 몽골의 아이들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자주 들려와서 어린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이며 수도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우리가 관리하는 쉐벨초등학교와 사랑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도 가끔은 원영이처럼 친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다. 몽골에서 10월부터 5월까지의 추위가 지속되어 단순 노무자들에게 일거리가 없는 시기이다. 집에서 일 없이 지내는 부모들이 하교한 아이를 위해 먹을 것과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길어와라’, ‘석탄불을 피워라’, ‘빨래해라’며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다니지만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가정의 아이들은 정해진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장기 결석을 하여도 집을 찾기도 힘들다.

교육이 답이다

아이들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답이기에, 부모의 무관심이나 경제적 상황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방과 후 친부모들의 방임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방과 후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은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숙제를 하고 간식도 먹고 피아노, 태권도, 합창, 장기, 과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부모님과 집으로 간다.

또한 화재 위험 때문에 석탄도 피우지 않고, 전기 누전의 위험 때문에 차단기도 내려놓은 게르에서

어린 아이 혼자 어둠과 추위 속에서 지내지 않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동화책도 읽어주고 따뜻한 음식도 제공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한다. 싹싹 거리며 낮잠을 자는 아이들의 소리가 노래 소리 같다. 아이들은 자면서도 자란다고 한다.

올마이키즈와 함께 꾸는 꿈

더 많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지만 운영비용 때문에 아이들을 무작정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올마이키즈와의 만남은 가뭄의 단비 같은 것이었다. 올마이키즈를 통해 도와주시는 후원자님들 덕분에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오전수업만 하는 몽골 교육체제 안에서 기존에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PC방을 기웃거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세계 전래동화를 읽고 영어 동요를 배우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들의 부모들 역시 많이 달라졌다. 결석하는 아이도 적어지고 공부상을 펴놓을 공간과 전기가 없어 숙제를 못하던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아이가 유치원을 마치고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에 부모님이 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찾아 나섰더니 부모님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살고 싶다고 울었다. 몽골 사회법상 친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시설로도 보낼 수가 없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데, 이런 아이가 아직도 참 많다. 어쩌면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이 원영이처럼 될 수도 있었겠다 싶으면 등골이 싸해진다. 아이들을 대신해서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방과 후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가족

함께할수록 커지는 가족 릴레이 나눔 이야기



안승복님(가운데)의 후원을 시작으로 여동생인 안향자님과 제부인 최병대님이 연이어 고액의 후원을 하였다.

새순을 틔우며 봄을 속삭이는 3월, 서로 의지하며 정답게 살아가는 후원자 세 분을 만나보았다.

딸 같은 내 동생

쌍둥이처럼 꼭 닮은 안승복님과 안월란님은 한국 전쟁 때 월남한 자매이다. 언니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동생을 딸처럼 돌봤다. 동생이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언니 부부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 등록금을 마련했고 그 덕분에 교사까지 될 수 있었다. 지금껏 화장지를 쓴 일이 없을 정도로 일생을 절약하며 살아오신 안승복님은 아흔이 넘은 나이에 그동안 모아온 돈 4천만원을 좋은 곳에 써달

라며 김영욱 이사장을 찾아오셨다. 동생을 학교에 보냈던 그 마음이 녹아있는 기부금은 네팔의 학교 건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교과서 살 돈이 없었던 아이들

언니 덕분에 배움을 계속할 수 있었던 안월란님은 학교 졸업 후 교사가 되었다. 남편 최병대님을 만난 것도 첫 발령지에서였다.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백년가약의 다리를 놓아준 셈이다. 남편 최병대님은 교장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반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분이다. 부모들이 찾아와 학교만 제대로 다니게 해달라고 사정하던 모습이 일상적이었던 가난한 시절, 최병대님은 박봉이었던 교사 월급에도 공부가 하고 싶지만 교과서가 없어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냥 볼 수만은 없었다고 회상한다. 최병대님의 도움을 받았던 제자 중 한명은 세무사가 되어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매년 스승의 날에 꽃을 보내온다고 한다.

처형의 기부는 가족의 모범

최병대님은 처형인 안승복님을 누구보다 존경하는 친누님 같은 분이라고 한다. 만기가 된 연금저

축 3천만원을 선뜻 기부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도 안승복님의 기부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기부금은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풍토병인 브릴리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브아케병원의 병원교실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4~5년간의 장기 입원으로 인해 교육 단절의 위기에 빠진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퇴원 후 복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갖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되고 있다.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부쩍 나눔의 목적이 변질되어 가는듯한 요즘,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두 분의 말씀에서 나눔의 참뜻이 묻어 나왔다. 기부증서를 받는 날 사진 찍는 것이 부끄럽다던 최병대님은 그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다. 자녀들이 보고 부모의 후원을 본받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래서일까 요즘 가족들 사



처형의 기부에 이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브아케병원 교실 건립 후원금을 기부하신 최병대, 안향자 부부에게 김영욱 이사장이 기부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에서 최대 화제는 기부라고 한다. 손주들은 탁자위에 올려놓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랑스레 꺼낸다고 한다.

처음에 세 분이 함께 계산 사진을 찍고 싶다고 부탁드리자 안승복님 맥으로 안내해주셨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성스레 가꾼 마당에 한가득 새싹이 돌아나 있었다. 희망 가득한 씨앗이 새싹이 되고 꽃이 되어 또 다른 씨앗이 되듯이 이 가족의 기부가 씨앗이 되어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홍보와 나눔 제안도 기부죠”

올마이키즈 소식을 방방곡곡에, 조용훈 후원자



2013년부터 올마이키즈와 함께 해 온 조용훈 후원자는 아프리카 앙골라의 세 아이 후원자로서 자신의 블로그는 물론 각종 웹 사이트에 올마이키즈를 적극 알렷다.

아침 굶은 돈 절약해 아프리카 세 어린이 후원

조용훈님에게는 ‘선물 같은’ 손자가 셋 있다. 손자들을 바라보며 적어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세 아이들을 보듬어야겠다는 생각에 후원을 시작하였다. 먼저 한 아이를 후원하였고, 그 무렵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을 감량하고자 아침을 거르기로 하면서, 아침밥 값을 아낀 돈으로 두 아이를 더 돕기 시

작하였다. 이렇게 2013년부터 시작된 세 아이들에 대한 후원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조용훈 후원자는 교육후원이야말로 아이에게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관심과 사랑이 중요

올마이키즈는 결연후원자에게 결연어린이들의 사진과 정보를 담은 액자를 보내드리고, 연 1회 아이들이 보내오는 소식을 전달한다. 하지만 아프리카 아이를 후원하는 조용훈 후원자처럼 아프리카 지역 사정상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혹시 서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후원자는 2015년 연말에 아이들 소식을 받아보았지만 소식을 전해 받는 것이 후원 유지에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후원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꼬집어 말하였다.

회사 직원에게도 적극적으로 나눔 권유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조용훈 후원자는 당시 본당 주임 신부였던 김영욱 이사장의 영향을 받아 나눔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주임신부의 인간적인 모습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그의 말에 공감했기에 어린이 교육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를 경영하는 조용훈 후원자는 직원들에게도 나눔의 필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처음에는 후원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던 직원들이 점점 나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가끔 나눔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원을 권유하는 것이 또 다른 나눔의 시작임을 느꼈다.

나눔 권유야 말로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눔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조용훈 후원자는 자신의 블로그와 각종 웹 사이트에 올마이키즈를 알리는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그는 다른 후원자들도 자신만 매달 한 번씩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쯤 나

눔을 권하자고 제안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자라길

조용훈 후원자는 결연 어린이들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자기 역할을 찾아 도움 받는 사람에서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또한 서재에서 뛰어놀던 손자들이 결연 어린이들의 액자를 보며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조용훈 후원자는,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첫째는 상대방이 진정 필요한 것을 주는 것, 둘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용훈 후원자는 나눔이란 미루지 않는 것,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며 조그마한 보답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하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해 온 조용훈 후원자의 삶은 그래서 특별하다.

해외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위해드림 봉사단 "We Have a Dream!"

홍보활동 봉사, 번역봉사 등 따뜻한 나눔 잇달아
한두 달에 한 번, 올마이키즈는 홍보활동을 한다. 올마이키즈를 소개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중요한 자리에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많은 봉사자분들이 계신다.

홍보활동은 주로 홍보 요청을 받아 준 각 교구의 성당에서 하게 되는데, 본당 사정에 맞추어 새벽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밤늦게 까지 계속되기도 한다.



홍보활동 후,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위해드림 봉사단

주말인데도 시간에 상관없이 홍보활동이 잡히면 언제든 달려와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신다.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도와주시는 봉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감사하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언어로 쓴 감사편지를 확인하고 번역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스페인어 편지를 받아들이고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서 당황하던 차에 무작정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에 전화를 걸어 번역봉사자 연결을 부탁드리기도 했다. 학과 측에서 흔쾌히 허락해주신 덕분에 인연을 맺게 된 봉사자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든든한 봉사자로 올마이키즈와 함께하고 있다.

학생들도 봉사자로 활약하고 있는데, 편지 번역에서부터 발송, 홍보미사 현장 도우미까지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후원자 겸 봉사자

후원자인 동시에 봉사자이기도 한 분들도 있다.



번역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한 학생이 정성스레 번역한 후원 어린이들의 감사편지

결연후원, 사업후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아이의 교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봉사를 통해 올마이키즈 활동전반을 뒷받침하여 사무국이 아이들 후원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돕는다.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도움을 주는 봉사자도 있다. 단순한 일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일까지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흔쾌히 맡고 있다.

재능기부로 아름다운 봉사 실천

분야에 상관없이 의지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장기를 살려 올마이키즈 활동을 도울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홍보활동 진행, 번역 봉사 이외에도 미용,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봉사에 동참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잘 다룬다면 자료 편집, 사무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봉사자로서의 활동이 기대한 만큼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면 개인적인 성장과 더불어 올마이키즈의 소중한 봉사자로서 한 걸음 더 발전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해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마음 따뜻한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사내용 : 번역(영어, 프랑스어, 따갈로그어), 문서편집, 홍보물 제작, 영상제작/편집, 사무보조, 외부홍보 등(모든 영역별로 가능)



이런 나눔도 있습니다! 영양제, 공책, 전기요 등 기부물품 후원

올마이키즈 사무국에는 하루 평균 30통 이상의 통화가 오고 간다. 대부분이 후원에 관한 문의 전화이다. 가끔 물품기부도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전화도 있다. 판매하던 물건인데 조금 여유가 있어 좋은 일에 쓸 수 있을까 싶어 전화를 해보았다는 내용이다. 작년에도 아동 의류와 영양제를 기부 받아 여러 나라에 요긴하게 후원하였던 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다.

그린스토어에서는 영양 섭취가 부족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어린이 영양제를 가득 보내주셨고, 부천의 부부약국에서도 여러 종류의 약품을 수차례 기부해 주셨다. 이렇게 기부 받은 비타민, 아연, 칼슘, 초유 등의 영양제와 밴드, 연고 등은 해외에 계시는 나눔협력 담당자가 사무국에 방문하거나 우리가 해외에 방문할 때 마다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사실 올마이키즈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놀이터 하나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를 놀이터 삼아 뛰어 노는 아이들에게 생채기가 생기는 일은 늘 일어난다.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에게는 작은 상처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하루 한 끼의 식사도 어려워



영양 섭취가 부족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어린이 영양제를 기부 받아 해외 후원국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전달하였다.

영양 결핍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아이들은 더욱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와 영양제가 꼭 필요하다.

부부약국과 주식회사 그린스토어에서 기부해 주신 의약품 등은 네팔,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케냐, 코트디부아르의 어린이들에게 골고루 잘 전달되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의 겨울은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춥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5평도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많은 식

구들과 함께 지내는데 제대로 된 난방장치가 있을 리가 없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거의 귀까지 가리는 털모자와 장갑을 끼고 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찬바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 항상 얼굴이 하얗게 트고 붉은 발갛게 얼어 있다. ㈜영메디칼바이오에서 기부해주신 100개의 전기장판은 추위로 인해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주는 따뜻한 선물이 되었다.

이청자 후원자님은 판매하는 노트를 기부하셨다. 한 눈에 보기에 꽤 무거워 보이는 노트 수십 권

을 꺼내 놓고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었지만 극구 사양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셨다. 잘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 한마디 없으셨다. 이런 것도 쓸모가 있나며 시종일관 부끄러워하셨다. 후원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후원금이 너무 적어 부끄럽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모두 다 자랑스러운 나눔이다.

이청자님께 나눔 받은 93권의 노트는 변변한 종이 한 장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의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 쓰여 질 예정이다.



(주)영메디칼바이오에서 기부해주신 전기요를 선물 받은 아이들



코트디부아르에 어린이 영양제와 기초의약품 전달

결연후원

* 1구와 강공준,강기보,강대선,강동만,강동훈,강미심,강미경,강병국,강선숙,강순희,강애형,강영민,강영선,강인모,강정순,강정심,강혜진,경광석,고급자,고기혁,고민정,고병국,고승일,고영식,고영실,고영욱,고영훈,고은비,고은희,고진영,고찬희,고춘희,고현주,고혜숙,공선희,공성호,공지호,곽병우,곽병수,곽진희,곽형선,곽희선,국민정,권도희,권상혁,권석우,권세영,권순만,권순미,권실비아,권오기,권오연,권오진,권오철,권태연,권하람,권하진,권현미,권혜립,권혜영,기우람,김한섭,김현숙,김갑수,김건중,김경분,김경숙,김경순,김경자,김경학,김경화,김경희,김계원,김관식,김광복,김광숙,김광자,김기륜,김기만,김기미,김기연,김기정,김기현,김나영,김나현,김나환,김능문,김다현,김대영,김대중,김도윤,김도윤,김도윤,김도는,김도현,김도훈,김동각,김동수,김동언,김동윤,김말연,김명숙,김명순,김명욱,김명욱,김명욱,김명자,김명진,김묘연,김미나,김미나,김미라,김미숙,김미애,김미연,김미영,김미자,김미현,김미현,김민경,김민선,김민재,김민정,김민정,김민혜,김민호,김병석,김병욱,김보용,김비아,김상건,김상범,김상화,김석일,김선경,김선균,김선민,김선아,김선영,김선화,김성구,김성란,김성목,김성숙,김성은,김성자,김성진,김성한,김세민,김소미,김송,김송현,김수정,김수정,김수현,김수환,김수희,김순란,김순애,김순영,김승렬,김승희,김시경,김시철,김신자,김신현,김아영,김애경,김애숙,김양임,김연순,김연주,김영기,김영대,김영미,김영미,김영민,김영범,김영수,김영숙,김영숙,김영애,김영자,김영재,김영지,김영찬,김영화,김영희,김예지,김예진,김옥경,김옥연,김옥주,김완구,김완호,김용석,김용재,김용준,김우주,김윤경,김윤숙,김윤임,김윤희,김은경,김은영,김은숙,김은아,김은영,김은자,김은주,김은현,김의형,김인숙,김인식,김일희,김재범,김재인,김재준,김재현,김점수,김정미,김정숙,김정숙,김정암,김정욱,김정임,김정진,김정현,김정호,김정화,김정화,김정희,김종복,김종석,김주갑,김주미,김주섭,김주영,김주원,김준호,김중식,김지석,김지선,김지영,김지영,김지원,김지현,김지혜,김지혜,김지훈,김진아,김진호,김찬,김창겸,김창수,김창수,김창영,김창해,김창환,김천균,김춘미,김태모,김태영,김표연,김하늘,김하나,김현기,김현령,김현복,김현성,김현숙,김현정,김현주,김형근,김형환,김혜수,김혜연,김혜영,김혜은,김호석,김홍미,김효상,김효순,김효임,김효정,김효진,김훈태,김휘자,김희선,나경자,나유환,나중원,나홍식,남궁갑,남기현,노경희,노보영,노영숙,노옥경,노이선,노종하,노지향,노혜정,능지림,도민우,도영철,류애영,류재락,명재성,목선미,목진주,문성숙,문소연,문영미,문영희,문옥경,문장원,문지수,민명자,민병심,민행미,박경진,박경훈,박귀희,박규리,박근희,박금구,박기현,박기현,박길임,박난희,박노렌조,박단비,박도화,박동은,박명우,박문수,박문주,박미경,박미소,박민섭,박범희,박병준,박복규,박분옥,박상민,박상윤,박상태,박상희,박서영,박선경,박선호,박성범,박성숙,박성우,박성우,박성해,박소미,박소현,박소희,박수옥,박수환,박순창,박승수,박연신,박영미,박영심,박영태,박영희,박옥선,박완수,박용범,박용일,박원남,박유정,박윤수,박은미,박은순,박인서,박인에,박인호,박재석,박재성,박정기,박정숙,박정숙,박정자,박정훈,박종만,박종무,박종순,박종운,박지용,박진석,박진옥,박진희,박찬우,박창범,박창영,박철순,박춘례,박혜연,박현미,박현정,박현희,박형순,박혜경,박환,박효정,박희영,반희연,방정숙,배승대,배승조,배영민,배영애,배윤정,배은숙,배은희,배형식,배화,백가영,백명화,백민주,백종성,백주일,백진량,백화자,서경숙,서기연,서기화,서동원,서순학,서승환,서윤정,서정욱,서정은,서진석,서춘자,성미경,성창수,성한중,소민호,소진순,손민정,손은순,손재호,손정자,손춘애,손호빈,송수복,송수례,송연주,송영관,송영빈,송영찬,송영훈,송은숙,송인배,송인영,송종영,송지연,송채영,송하늘,송하얀,송하이,송훈석,신갑순,신광천,신광호,신기화,신다원,신다희,신동일,신동진,신미애,신민영,신상길,신서경,신서민,신수웅,신수현,신숙이,신숙자,신숙향,신정식,신정필,신정희,신창용,신현구,신희경,신희철,심명자,심미애,심상형,심소옥,심영란,심재인,심재찬,심혁,안가람,안경태,안나혜,안서용,안성자,안승천,안영목,안원국,안윤숙,안윤진,안윤진,안정희,안종미,안호중,안홍자,안홍식,안희재,안희중,양봉순,양승규,양재덕,양정이,양정희,양하중,양한주,양해나,어봉우,엄경욱,연승주,연영란,연준영,엄혜령,오경자,오남주,오동현,오성해,오세연,오세원,오윤자,오준환,오창용,오혁동,오형섭,육광숙,왕보영,왕소영,왕인숙,윙희숙,우영미,우재성,우점경,윙용희,유급순,유미나,유병수,유병태,유상돈,유승호,유양희,유연준,유은숙,유은희,유인호,유종섭,유진철,유태현,유향진,유형봉,유홍기,윤경미,윤사라,윤삼순,윤선태,윤성택,윤영선,윤은경,윤재순,윤정숙,윤정은,윤하용,윤현경,윤희선,유창윤,이강민,이건우,이경섭,이경우,이경우,이경훈,이경훈,이경희,이경희,이계화,이광복,이광순,이광중,이광형,이교찬,이국자,이국재,이규봉,이규성,이규원,이기진,이기환,이길자,이다빈,이대훈,이도원,이동수,이두식,이득기,이랑자,이명미,이미영,이미옥,이미재,이민정,이방숙,이법재,이법진,이병구,이병국,이병삼,이병훈,이병희,이보람,이상도,이상빈,이상빈,이상우,이상훈,이상희,이서윤,이석,이석민,이석영,이선경,이선영,이선필,이선화,이선화,이성균,이성미,이성숙,이성숙,이성필,이성환,이성희,이소윤,이소윤,이소희,이슬,이수덕,이수일,이숙경,이숙영,이순연,이순영,이순자,이승목,이승열,이승재,이승훈,이승훈,이승희,이승희,이신희,이애심,이양숙,이여람,이연욱,이영미,이영미,이영숙,이영순,이영욱,이영재,이영희,이영희,이예진,이용길,이용표,이옥희,이운정,이원국,이원복,이원석,이원아,이원학,이유미,이윤미,이윤정,이은서,이은자,이은하,이인건,이인숙,이자경,이장용,이재광,이재윤,이재천,이점실,이정겸,이정림,이정문,이정숙,이정숙,이정순,이정자,이정자,이정재,이정호,이정희,이종민,이종진,이종찬,이종환,이주은,이주환,이준용,이준철,이준호,이증숙,이지현,이진용,이창미,이창석,이초희,이태민,이태호,이태훈,이혜경,이혜리,이혜윤,이향

이현,이현숙,이현영,이현표,이형원,이혜란,이혜숙,이혜지,이호정,이화영,이희영,이효민,이효순,이후재,이훈재,이희동,이희숙,이희연,이희영,이희주,인재환,임건재,임계선,임계숙,임동화,임미애,임미영,임영식,임용순,임은정,임인택,임재숙,임정순,임주섭,임지수,임지혜,임진영,임창석,임철순,임태선,임택근,임현경,임현숙,임형길,장대석,장무자,장복희,장영화,장오선,장옥분,장원경,장유민,장유진,장은희,장인옥,장정숙,장준,장태후,장현정,장혜미,장혜원,장호순,전보라,전연분,전인혁,전재영,전형준,정경숙,정계현,정광수,정길조,정남균,정동국,정명수,정명자,정명자,정미정,정선,정선경,정선희,정소영,정순녀,정순천,정순홍,정애숙,정연민,정영미,정우철,정원경,정유정,정윤자,정은주,정재영,정정숙,정정자,정지이,정진호,정창화,정준화,정혜득,정현숙,정현숙,정현자,정흥순,정희도,정희연,조정임,조근,조남석,조남진,조덕형,조돈찬,조명동,조명연,조민경,조민수,조보경,조분순,조성근,조성현,조승진,조애형,조연주,조영숙,조영욱,조유현,조이현,조정연,조정욱,조종선,조진숙,조천우,조항심,조혜진,조훈기,주민호,주선희,주인화,주해돈,주혜순,지민구,지민정,지정욱,지희숙,진사랑,진성빈,차동수,차영섭,차왕용,차재숙,차재영,차희덕,채경화,채신덕,채윤제,채은주,천미혜,최건숙,최경자,최규섭,최규호,최대호,최리나,최명민,최명호,최문선,최미경,최민규,최민서,최민선,최범규,최상수,최서창,최선화,최세권,최세경,최시창,최양규,최연승,최영자,최영주,최옥자,최완석,최우진,최원식,최윤선,최윤선,최은성,최은주,최인숙,최재규,최재학,최종문,최종철,최주희,최준원,최진우,최진이,최춘복,최형승,최현숙,최형호,최형환,최혜숙,최희자,표병화,피진권,하미선,하미숙,하지현,한경동,한대일,한동훈,한명란,한명아,한성희,한예슬,한용선,한우리,한은숙,한은희,한정남,한정욱,한정호,한정희,한지예,한지은,한재정,함미정,허숙,허재석,허정원,현경아,현동준,현은주,홍미나,홍석영,홍성민,홍성수,홍성순,홍연자,홍영기,홍우영,홍은영,홍진기,홍희경,황규호,황명수,황상희,황서영,황선숙,황선임,황성택,황우아,황순경,황영숙,황유경,황은영,황인섭,황인섭,황진숙,황진숙,황정진,황지은,황현미,황원하,개념원리 수학,닥터크린,샘드네지역아동센터,일홍상사, ㈜한아름테크,2015박문중2미,3동초등부교사회,ja11영성체,M.E.계영건설㈜,구인회,그라시아성가대,그리스도어머니,낙원기업㈜,마수리회,미드미양상블,믿음의샘Pr,밀알회,바다의별Pr,바로로회,베드로회,복사단자모회,상동성당제대회,성모승천,성물방,성심대건회,소사분3동청년연합회,숫대단스카우트,수오반모임,순교자들의모후Pr.,순교자모후,송의동성당자모회,신우회,아드덴테스,안나회,여럿이함께,역곡2동성당반찬시오,예수외신교수녀회,은유하신모후Pr.,우리농,일치의모후,제대회,제천성모유치원,㈜금강이앤씨,㈜선광,주안5동성모회,주안5동오션회,주안8동성당청년복사단,지혜의동정녀,진일전기㈜,파랑새,평화의모후,플룻동아리,한울빛성가대,현화회,효성동성당청년전례부

* 2구와 강윤희,강태경,강혜진,고종익,권용순,김대현,김두찬,김상희,김승희,김윤정,김인숙,김정화,김진희,김홍섭,김희호,나법진,나현지,남윤현,문순주,박남숙,박남숙,박성우,박재란,박종복,박준희,박창목,박창범,박화선,신성웅,심영란,오상호,윤영연,이경이,이애숙,이영백,이화자,임병국,임원섭,정무시아,조규정,최용병,최정이,홍정아,3동반찬시오,로사매,복사빛성가대,소사분동성당반찬시오회,역곡2동성당사회복지,하비에르성가대,화토틀

* 3구와 강계원,김지훈,김춘명,박경자,박순영,이근일,이문재,이정욱,전창훈,정호철,조용훈,황초현, ㈜한영티엔에스가족들,부평1동성당,청라성당반찬시오회,소사분동성당,검암동반찬시오회,주안5동사회복지분과

* 4구와 고애경,김순영,김정순,류연순,박재순,송학근

* 5구와 강은형,김영욱,하비에르카페

* 10구와 김계영,김동원,반석동성당사회복지분과

사업후원

강경아,강경하,강경호,강금아,강동만,강말심,강민정,강법석,강분희,강성자,강숙자,강신순,강영구,강영란,강정석,강정순,강정희,강현표,강현욱,경윤노,고나경,고순자,고호중,고희숙,공성태,공유숙,곽명숙,곽명호,곽지영,구윤희,구자열,구정희,구철희,권미례,권미숙,권미숙,권미영,권민정,권세현,권윤우,권인숙,권정호,기현미,김경민,김경석,김경수,김경숙,김경숙,김경선,김경애,김경혜,김고순,김광분,김교분,김귀희,김기원,김기현,김도선,김동섭,김명수,김명숙,김명준,김명희,김무연,김미경,김미남,김미란,김미선,김미숙,김미정,김민식,김민정,김민재,김병선,김병술,김병정,김복순,김상길,김서연,김석훈,김선정,김선화,김성례,김성수,김성숙,김성욱,김성자,김성진,김성호,김성환,김성희,김수립,김수자,김순례,김순자,김순자,김송,김승자,김시정,김신자,김양배,김연관,김영근,김영란,김영래,김영욱,김영은,김영자,김영자,김영자,김영철,김영희,김옥분,김옥선,김옥순,김용경,김원귀,김유현,김은영,김은욱,김은정,김은주,김인숙,김인숙,김인숙,김인철,김재순,김재순,김재하,김정기,김정심,김정은,김정자,김정자,김정희,김조현,김종명,김종욱,김종현,김주애,김주찬,김준모,김준섭,김준우,김준희,김지민,김지성,김지은,김지현,김춘란,김태숙,김태안,김태윤,김태호,김태훈,김평순,김평심,김해련,김해린,김현미,김현석,김현욱,김현정,김형태,김혜순,김혜원,김홍기,김홍태,김화실,김화중,김효선,김효진,김희경,김희경,김희자,김희정,나근호,나도근,나영애,노경희,노미자,노영호,노옥선,노지호,라옥분,류

병헌,류상걸,명노옥,모연숙,문경아,문숙경,민병례,민병춘,민선숙,민윤우,민정화,민화옥,박경석,박경숙,박경자,박금휘,박기복,박나운,박나현,박노희,박동근,박리나,박무영,박미라,박미선,박미옥,박미화,박봉심,박상순,박상희,박서연,박선미,박선옥,박선용,박선종,박성동,박성민,박수민,박순기,박순남,박순림,박순예,박순자,박순자,박시연,박양의,박연수,박영숙,박영찬,박영철,박영출,박옥례,박옥선,박옥선,박용서,박은순,박익배,박재희,박정음,박정자,박제용,박종인,박주원,박준화,박준호,박현숙,박현영,박현정,박현주,박혜진,박혜현,박화자,박흥남,방선영,방현숙,배공식,배대호,배상익,배영자,배정섭,배지은,배현영,백남규,백대성,백상용,백인호,백지후,백혜연,변종필,서경석,서남철,서도영,서성원,서신자,서영성,서종철,설지연,성백선,성영란,성현옥,손미현,손순민,손연성,손정현,손정호,손채연,손홍일,송경순,송명환,송민정,송순옥,송연주,송인강,송인순,송정자,송현숙,신경숙,신명선,신성호,신순옥,신순희,신승순,신애자,신영선,신우식,신은종,신정자,신효연,신희자,심숙,심우성,심재훈,심호정,안규준,안명자,안성진,안세찬,안수진,안승복,안영애,안옥규,안옥현,안월란,안정숙,안혜성,양기원,양미숙,양종귀,양총석,양필순,염우용,염은숙,염정은,여영숙,오경근,오경순,오무경,오문규,오애자,오은성,오인숙,오인순,오지은,오지현,오천호,오효숙,왕진택,우재영,우정애,우철미,유경춘,유미경,유미라,유민영,유병열,유상호,유서영,유선임,유순옥,유순정,유영순,유영순,유인숙,유정민,유정임,유진원,유진형,유희자,윤경희,윤경희,윤미경,윤병우,윤부국,윤선양,윤인숙,윤재홍,윤진화,윤현중,윤혜영,윤호섭,윤희식,윤희진,이강민,이경숙,이경숙,이경신,이경옥,이경훈,이광규,이광민,이규희,이금수,이기석,이기현,이남수,이니키,이다빈,이대연,이동수,이동식,이동하,이동호,이두이,이명자,이명자,이미석,이미순,이미연,이미의,이미화,이병년,이보영,이부현,이부희,이상순,이상자,이상혜,이선경,이선용,이선희,이성복,이성희,이송자,이수경,이수미,이수연,이수자,이숙재,이숙형,이순경,이순근,이순자,이순희,이승순,이승호,이신수,이양임,이연숙,이영민,이영선,이영숙,이영숙,이영숙,이영순,이영자,이영지,이영현,이예리,이예린,이예훈,이옥자,이웅신,이원자,이유현,이윤철,이윤화,이은미,이은선,이은숙,이은숙,이은실,이은정,이은주,이은희,이은희,이장욱,이재임,이정희,이정숙,이정숙,이정실,이정윤,이정윤,이정윤,이정윤,이정자,이종숙,이주현,이주희,이준빈,이준희,이지은,이진희,이창재,이철기,이철자,이하연,이한성,이항순,이해경,이해선,이향숙,이향자,이현순,이형태,이혜숙,이혜숙,이혜연,이호경,이호림,이희경,이희석,인춘희,임경순,임도현,임만순,임미화,임순덕,임애자,임영주,임우람,임정임,임종욱,임지현,임진화,임채련,임채린,임채용,임춘자,임환숙,장금순,장동일,장명주,장미란,장복순,장현석,장석자,장선옥,장연옥,장용미,장우철,장인한,장재영,장장순,장총렬,장현태,장희선,장희숙,장희윤,전성자,전영순,전은비,전은숙,전인자,전지수,전필숙,전현수,정경임,정국,정귀영,정금옥,정금윤,정남득,정다영,정무경,정미순,정미정,정미진,정병수,정봉덕,정선자,정성권,정성애,정성준,정수아,정순복,정순이,정순자,정순화,정승렬,정어진,정연서,정연실,정영순,정영자,정원호,정윤경,정윤석,정윤식,정인영,정자윤,정재욱,정정남,정주아,정지연,정창화,정혜경,정혜순,정현남,정현주,정혜진,정화련,정화순,정훈숙,조경자,조규순,조기갑,조나예,조명순,조명옥,조목희,조문기,조복례,조봉자,조성환,조숙자,조숙현,조영자,조영자,조영주,조용석,조용희,조윤영,조은향,조인식,조정희,조진선,조춘해,주정수,주진태,지공순,지다혜,지명자,지성자,진미경,차아인,차연희,채명희,채미옥,채영일,천선금,천승학,최광은,최근성,최기석,최남석,최덕순,최미리,최미순,최범진,최병대,최병윤,최복녀,최상은,최선미,최성애,최성옥,최순영,최순일,최승미,최연식,최연자,최영미,최영수,최영재,최영호,최윤섭,최원혁,최인교,최인우,최인자,최정윤,최종순,최종철,최지선,최진숙,최현유,최혜숙,최혜화,추연용,추창숙,태정연,표기자,하나회,하미화,한도연,한봉애,한상국,한순이,한아름,한애자,한예은,한은경,한재화,한진경,한춘희,한해균,허미영,허순애,허영주,허은희,허정임,현관명,홍기표,홍두표,홍성권,홍성자,홍수자,홍연순,홍연희,홍윤정,홍정숙,홍정희,홍지은,홍희자,홍희정,황국지,황규정,황금순,황미영,황순근,황인옥,황정옥,황한영,황현철,황혜영,330회,대건24,복사단지모회,부2왕례,부천가톨릭미술인회,송의동성당사목회,셋별쁘레시디움,엠마우스회,역곡2동성당,역곡2동평화의모후Pr,인천교구,주3바실리오,주안3동성당,천주교인천교구장애인연합회,카톨릭대신학대학원,포차501

특별후원

구월1동성당(5,000,000),송의동성당(3,000,000),안승복(40,000,000),이명숙(5,000,000),천상의커피(26,367,500),최병대(30,000,000)

운영후원

강은형,권병기,김상균,김연숙,김영옥,김효식,박영대,유철종,이범석,이종인,이지형,이창현,한경택

기부물품후원

김정임(의약품),부부약국(의약품),썬그린스토어(어린이영양제),썬영메디칼바이오(전기요)

주요 연혁

2012

08.24

올마이키즈(allmykids) 설립

2013

01.27

1차 후원회 홍보

02.27

1차 125명 아동후원 시작

03.13

필리핀 현지 방문(바콜로드)

12.03

시리아 담당 수녀 간담회 및 현지 어린이 의류 전달

2014

05.21

필리핀 현지 방문(마닐라, 바콜로드, 세부)

09.27

필리핀(세부) 현지관리자와의 후원자 간담회

11.21

봉사자학교(11/21~12/12 매주 금요일 4회)

2015

01.15

사무실 이전

01.23

비영리 사단법인 창립총회

04.10

경기도청 법인 설립 허가

04.24

사단법인 등록

05.04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부천시 자원봉사센터)

06.30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08.24

설립3주년 감사행사

12.30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자료 제출기관 등록

2015년부터 소득공제 서류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56 신흥빌딩 401호

연락처 | 032-214-7700 팩스 | 032-214-7701

e-mail | allmykids@hanmail.net

홈페이지 | www.allmykids.or.kr

